

農家勞動力의 移動과 就業構造의 變化 : 1963~78

金 英 植

首席研究員, Ph. D.(經濟學), 長期展望研究室

李 廷 湧

研究員, 長期展望研究室

- I. 序 論
- II. 農家人口 및 勞動力의 變化
- III. 農家勞動力의 移動量 推定
- IV. 農業部門 就業人口 및 雇傭構造의 變化
- V. 要約 및 結論

I. 序 論

勞動力의 部門間 移動現象은 經濟成長過程에서 많은 관심을 받아 온 分野이다. 經濟成長 즉 1人當 國民所得의 增加는 產業構造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이러한 產業構造의 變化는 部門間에 勞動力을 포함한 資源移動을 수반한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특히 勞動力의 部門間移動 問題는 Fei-Rains의 模型을 포함한 두 部門 成長理論에서는 經濟成長의 핵심 요소가 되고 있다 (1, 2, 3). 人口 또는 勞動力의 部門間 또는 地域間 移動問題에 대해서는 理論的 또는 經驗的인 많은 研究結果가 발표되었다(4).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이 分野에 대한 資料의 정리 또는 研究가 극히 미미한 단계에 있다. 本 論文에서는 우리 經濟가 高度成長을 계속해 왔던 지난 15年間(1963~78)을 중심

으로 農業部門의 人口 및 勞動力의 變化 趨勢를 檢討하고, 이들 資料를 이용하여 農家勞動力의 純移動量을 推定코자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農家勞動力의 移動에 따른 就業人口의 變化와 雇傭構造의 變化를 分析하였다.

勞動力의 部門別 移動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인이 검토되고 있다. Fei and Ranis (1), Jorgenson (3), Lewis (2) 등의 模型에서는 部門間 勞賃의 差를 勞動力 移動의 要因으로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같이 雇傭勞動의 比重이 낮고 영세한 家族 經營의인 農業構造下에서는 이들 模型의 현실성의 의문시된다. 이러한 의문은 Ohkawa (6)의 研究에서도 지적되고 있다. Harris와 Todaro(5)는 部門別 實質所得과 求職確率을 고려한 期待所得을 그 要因으로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Ohkawa와 Rosovsky (6)는 日本資料의 分析에서 部門別 所得의 差와 勞動力 移動間에 有意的인 關係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이유에 대해서 Mundlak (7)는 資料의 制約에 기인된 것으로 보고, 1960年과 1970年을 기준으로 한 72個國의 橫的資料를 이용하여 期待所得의 差와 部門別 勞動力移動間에 有意的인 關係가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部門別

勞動力 移動에 관련된 要因으로서는 이 외에도 教育, 나이, 移動費用, 職業情報, 都市化, 人口 密度 등 여러 가지 要因이 고려되고 있다.

本稿에서도 推定된 勞動力 移動量의 설명을 위해서 可用한 몇 가지 勞動力 移動 模型의 적용을 시도하였으나, 資料의 制約 특히 資料變異幅의 협소로 만족할 만한 結果를 얻을 수 없어 제외 하였다. 이러한 勞動力 移動에 대한 要因分析은 앞으로 이루어져야 할 研究課題이다.

II. 農家人口 및 勞動力의 變化

經濟成長과 部門間 成長率의 差異에 의한 產業構造의 變化에 따라 그 동안 (1963~78) 人口 및 雇傭構造에 많은 變化가 있었다. 農業部門은 기준기간(1963~65)에 總人口의 약 56%로서 國民生産의 약 37%를 生産하고 있었으나, 그 동안 그 相對的 比重이 계속 縮少되어, 1978년에는 31%의 人口로 약 21%의 生産을 하고 있다. 經濟成長에 따른 이러한 農業部門의 相對的 縮少 過程은 이미 많은 관심을 받아 온 問題이며, 특히 非農業部門의 資本蓄積과 고용확대에 따른 農業部門 人口 및 勞動力의 移動은 經濟成長의 基本的인 過程으로 인정되고 있다.

經濟成長에 따른 이러한 農業部門의 人口 및 勞動力의 減少過程은 相對的인 減少段階와 絕對的인 減少段階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만약 人口 및 勞動力의 增加가 靜態的이면, 두 段階는 같은 現象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經濟成長이 빠른 속도를 유지해 왔던 지난 15年間의 農家人口 와 經濟活動人口로 측정된 農家勞動力의 變化는 <表 1>에서 보는 바와 같다.

農水産部에서 標本調査에 의한 推計로 발표 하고 있는 農家人口의 變化를 보면 1963년에 總

表 1. 農家人口 및 農家經濟活動人口의 變化

단위: 千人, %

年度	農家人口	農家經濟活動人口	14세以上人口比率	農家經濟活動參加率
1963	15,266 (56.0) *	5,089 (61.0)	56.9	58.6
64	15,553 (55.6)	5,168 (61.2)	57.1	58.2
65	15,811 (55.1)	5,233 (59.1)	56.8	58.2
66	15,761 (53.6)	5,279 (58.2)	57.1	58.6
67	16,078 (53.4)	5,195 (55.9)	55.0	58.7
68	15,908 (51.6)	5,256 (54.5)	54.9	60.1
69	15,589 (49.4)	5,259 (53.2)	55.2	61.1
70	14,422 (44.8)	5,198 (51.0)	59.2	60.9
71	14,712 (44.7)	5,094 (48.3)	56.2	61.5
72	14,677 (43.8)	5,408 (48.9)	57.6	64.0
73	14,644 (42.9)	5,682 (49.0)	59.7	65.0
74	13,459 (38.8)	5,773 (47.8)	66.8	64.3
75	13,244 (38.2)	5,673 (46.0)	68.4	62.7
76	12,785 (35.7)	5,914 (45.3)	71.4	64.8
77	12,309 (33.8)	5,709 (42.5)	73.3	63.3
78	11,528 (31.1)	5,585 (40.1)	75.8	63.9

* () 내 수치는 總人口 및 全國經濟活動人口에 대한 構成比임.
資料: 「農林統計年報」 및 「經濟活動人口年報」.

人口에 대한 農家人口 構成比는 약 56%를 차지 하고 있었다. 그 후 農家人口의 構成比는 계속 減少하여 1969년에는 약 50% 水準으로 農家人口 와 非農家人口가 비슷한 水準이 되었다. 그 후 農家人口 構成比의 減少는 70年代 初半까지 완 만한 추세를 보이다가 74年 이후 加速化되어 78 年 현재 약 31% 水準으로 되었다.

이와 같이 農家人口의 構成比는 지난 15年 동 안 56%에서 31%로 25% 포인트가 감소되었는 데, 이를 5年 기간으로 나누어 보면 처음 5年間 은 5% 포인트, 다음 5年間에는 9% 포인트, 마지 막 기간에는 11% 포인트로 가속적인 減少趨勢 를 보이고 있다. 農業部門의 比重이 줄어들며 따라 農家人口의 構成比의 減少가 加速化된다는 사실은 다른 나라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8). 이러한 관계는 代數的으로도 쉽게 볼 수 있다. 農家人口構成比의 變化率(\dot{S})은 農家人口의 增加 率(\dot{P}_a)과 總人口增加率(\dot{P})의 差異 다시 말하여 $\dot{S} = \dot{P}_a - \dot{P}$ 로, 이는 또 $\dot{S} = (1-S)(\dot{P}_a - \dot{P}_n)$ 로 表示

있어, 農家人口 構成比의 減少는 農家人口의 構成比(S)가 줄어들음에 따라 加速化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農家人口 構成比의 減少는 日本이나 臺灣의 경우에도 速度의 差異는 있었지만, 비슷한 현상을 보이고 있다. 臺灣의 경우를 보면 1963년에 그 比率이 약 47%로 우리나라의 1970年 水準인 45%와 비슷한 水準으로 産業別 人口 構成面에서 우리나라와 약 7年の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그러나 그 후 減少가 완만하여 1976년에 약 34%로 동일년도 우리나라의 36% 水準과 비슷하게 되었다. 그리고 日本의 경우는 이미 1963년에 그 比率이 약 33%로 우리나라의 1977年 水準인 34%보다도 낮은 水準에 있었다. 이로서 人口 構成面에서 본 우리나라의 産業構造가 日本과 비교해서 약 15年の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經濟成長過程에서 農家人口의 두 번째 減少段階는 農家人口의 絶對的인 減少現象으로서, 이는 農業部門에 從事하는 人口의 生産性을 向上시킬 수 있는 基本要素가 되기 때문에 相對的 減少現象보다도 農業部門에 더 큰 영향을 주게 된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 農家人口의 相對的 比重은 계속 減少하는 추세를 보였지만, 絶對人口는 1960年代 中半期까지 계속 增加하여 왔다. 農家人口는 1963년에 약 15.3百萬人이었고, 그 후 계속 增加하여 오다가 1967年の 16.1百萬人을 고비로 減少趨勢로 바뀌었다. 減少趨勢는 비교적 빠른 速度를 보여, 減少趨勢가 시작된 지 3年 후인 1970年の 農家人口는 1967年の 약 90% 水準으로 급격히 줄어들게 되었다. 그 후 73년까지는 별 변동이 없이 70年 水準을 維持하고 있었으나, 74년부터 다시 빠른 속도의 減少趨勢가 계속되어, 1978年 現在 農家人口는 약 11.5百萬人으로 피크年度였던 1967年 人口의

약 72% 水準으로 줄었다.

다음은 農家の 勞動力 供給量을 表示하는 經濟活動人口의 變化를 살펴보자. 이들 資料는 經濟企劃院에서 分期別로 標本調査에 의한 推計로 발표되고 있는데, 資料의 說明에 의하면 經濟活動人口는 14歲 이상 人口 중에서 財貨나 用役을 生産하기 위하여 勞働을 提供할 意思가 있는 사람으로 定義되어 있다.

總 經濟活動人口에 대한 農家經濟活動人口의 構成比는 1963년에 61% 水準이었으나, 7年 후인 1970년에는 51%로 줄어 農家와 非農家の 經濟活動人口가 거의 같아지게 되었다. 그 후 1971년부터 1976년까지는 構成比의 減少速度가 비교적 완만하여 5年 동안에 3% 포인트의 減少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1977년부터는 다시 그 減少가 加速化되어 1976年の 약 45%에서 78年 現在 약 40%로 2個年 동안에 무려 5% 포인트나 줄어들었다.

農家經濟活動人口의 絶對數를 보면 1960年代에는 약 5.0~5.3百萬명 水準을 維持하고 있다가, 1972년부터 급격히 增加하여 1976년에는 가장 많은 약 5.9百萬명에 이르게 되었다. 이와 같이 70年代 初半부터 農家の 經濟活動人口가 급격히 增加한 것은 農家經濟活動參加率이 높아지고 14歲 이상 人口 構成比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그리고 1977년부터 農家經濟活動人口는 減少경향을 보이기 시작하여 78年 現在 약 5.6百萬명 수준에 있다.

이상의 資料에서 본 바와 같이 農家人口 및 農家經濟活動人口의 構成比는 全期間을 통하여 계속적인 減少趨勢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絶對人口를 보면 農家人口는 69년부터 減少趨勢가 시작되었고, 經濟活動人口는 이보다 8年 후인 77년부터 減少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部門間

14歲 이상 人口의 構成比와 經濟活動 參加率의 차이를 의미하는 것이다. 먼저 農家人口에서 14歲 이상 人口가 차지하는 比率을 보면 1963~73年間에는 약 55~59% 水準으로 큰 變化가 없었으나, 74年부터 급격히 增加하여 78年 현재 약 76% 水準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1955年경부터 시작된 戰後「베이비 붐」 당시 出生한 아기가 勞動人口로 成長한 것으로 農家の 經濟活動人口가 급격히 增加한 것이 중요한 原因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60年代初부터 실시한 家族計劃事業의 効果, 生活水準의 向上, 婚姻年齡의 上昇 등으로 60年代부터 出産力이 低下하였으며, 그 結果 앞으로 14歲 이상 人口의 增加가 다소 둔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다음으로 14歲 이상 人口 中 經濟活動參加率을 期間別로 보면 1963~67年은 58~59%, 68~76年 사이에는 60~61%, 72~73년에는 64~65%로 계속 增加하다가, 74年 이후에는 63~64%의 水準에 머물고 있다. 이와 같이 經濟活動參加率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職業에 대한 社會的 認識의 變化와 經濟發展과 더불어 일자리가 늘어남에 따라 부녀자 등의 經濟活動이 활발해졌기 때문일 것이다.

Ⅲ. 農家勞動力의 移動量 推定

앞에서 우리는 지난 15年 동안에 農家の 人口와 勞動人口의 變化를 살펴보았다. 農家人口는 1967년까지, 그리고 農家の 勞動力人口는 1977년까지 增加趨勢를 보였으나, 전체에 대한 構成比는 全期間을 통하여 모두 減少하는 趨勢를 보였다. 이러한 현상은 만약 人口 및 勞動力의 自然增加率이 部門間에 차이가 없었다고 하면, 農

業部門으로부터 非農業部門으로의 人口 및 勞動力의 移動이 계속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人口 특히 勞動力의 部門間 移動은 經濟成長 및 豫測에 主要한 資料로서 이의 分析을 위한 많은 理論的 發展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理論的 實證的 分析을 위한 勞動力의 部門間 移動量에 대한 직접적인 調査는 극히 미비한 상태에 있다. 최근 家族計劃研究院의 한 報告書는 1970年과 1975年에 이루어진 總人口 및 住宅에 대한 센서스 調査資料를 이용하여 農村으로부터 都市로의 人口 移動量을 推定하였다(9). 그 結果에 의하면 1965~70年 사이에 農村에서 都市로 移動한 人口는 1,827千名, 都市에서 農村으로 移動한 人口는 387千名으로, 이 기간에 農村人口의 純移動量은 1,440千名이었다. 1970~75年 기간에는 農村에서 都市로 移動한 人口가 1,755千名, 都市에서 農村으로 移動한 人口가 558千名으로 農村人口의 純移動量은 1965~70年에 비해 약간 둔화된 1,196千名으로 推定되었다. 그리고 1965~70年의 人口移動量 1,440千名中 14歲 이상 人口의 比率은 79.1%, 14歲 이상 人口 中 經濟活動人口의 比率은 56.7%이었다. 1970~75年의 人口移動量 1,196千名 가운데 14歲 이상 人口의 比率은 81%, 이 중 經濟活動人口의 比率은 58.8%이었다. 이들 資料를 이용하여 두 기간에 農村으로부터 都市로의 經濟活動人口의 純移動量을 推定해 보면 1965~70年에는 646千名으로 年平均 129千名, 1970~75年 사이에는 570千名으로 年平均 114千名으로 계산된다.

本稿에서는 <表 1>에서 볼 수 있는 年度別 農家經濟活動人口의 構成比에 대한 資料를 이용하여 지난 15年間 年度別 農家勞動力의 純移動量을 推定코자 하였다. 그러나 資料의 不安定性으

로 3個年 期間으로 나누어 期間別 年平均 移動量을 推定 하였다. 推定에 이용한 公式은 다음과 같다.

$$M(t) = L(t) \left[\frac{1+n_a}{1+n} l(t-1) - l(t) \right]$$

위 式에서 M은 農家勞動力의 純移動量, L은 總勞動力, l은 總勞動力에 대한 農家勞動力의 構成比, 그리고, 그리고 n과 n_a는 總勞動力 및 農家勞動力의 自然增加率을 각각 표시한다. 그리고 t는 年度를 표시하는데, M(t)는 t年度の 年間 移動量을 의미하고, L(t)과 l(t)는 t年度の 年末을 기준한 時點의 數值를 대표한다. 위 式으로부터 t年度の 年間 勞動力의 純移動量은 t-1年度の 勞動力에서 만약 勞動力의 部門間 移動이 없었다고 하면 t年度에 있어야 할 勞動力을 계산하고, 이로부터 실제 t年度에 있는 勞動力을 減하여 推定되는 것이다. 部門間 勞動力 移動量 推定을 위한 이러한 算式은 他研究에서도 이용되었다(7).

위 式을 이용하여 勞動力 移動量을 推定하기 위해서는 年度別 總勞動人口와 農家勞動人口의 構成比 그리고 總勞動人口 및 農家勞動人口의 自然增加率에 관한 資料가 필요하다. 勞動人口의 自然增加率은 다음과 같은 3가지의 상이한 가정을 설정하여 3個年期間의 平均增加率로 推定하였다.² 그 첫번째 假定은 部門別 勞動人口의 自然增加率이 同一하다는 것이고, 두번째 假定은 部門別 14歲 이상 人口의 自然增加率은 同一하나 14歲 이상 人口 中 勞動力 參加率의 變化가 部門間에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세번째 가정은 部門別 人口의 自然增加率은 同一하나 人口 中 14歲 이상 人口 構成比의 變化率과 勞動參加率의 變化率이 部門間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假定이다. 이러한 가정으로 推定된

農家勞動人口의 自然增加率(n_a)과 總勞動人口의 增加率(n)은 <表 2>에서 보는 바와 같다.

<表 2>에서 보면 全體勞動人口의 年增加率은 70年 이전에는 3%에 약간 미달하는 水準이었으나, 1970~72年 기간에는 4.8%, 이 후에도 약 4%의 높은 水準을 보이고 있다. 勞動人口의 增加率은 人口增加率과 14歲 이상 人口 構成比 및 勞動參與率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70年 이후에 勞動人口의 增加率이 급격히 높아진 것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戰後「베이비 붐」기에 출생한 人口가 勞動年齡으로 되기 시작하여 14歲 이상 人口 構成比가 높아지고, 經濟成長에 따른 雇傭機會의 擴大로 勞動參與率이 높아진 데 기인

表 2 全體勞動力 및 農家勞動力의 自然增加率

期間	全體勞動力增加率	農家勞動力增加率	
		假 定 II	假 定 III
64~66	2.84%	2.76%	2.71%
67~69	2.92	1.42	2.63
70~72	4.80	5.37	5.16
73~75	3.73	2.78	7.05
76~78	4.13	3.90	5.76

된 것이다.

그리고 推定된 農家勞動人口의 自然增加率은 1967~69年 기간의 假定II의 경우를 제외하면 70年 이전에는 2.6~2.7%로 全體 勞動力 增加率보다 약간 낮은 水準에 있다. 그리고 農家の 경우도 勞動力의 自然增加率이 70年 이후가 그 이전보다 높은 水準을 보이고 있다. 특히 1970~72年의 경우는 假定 II와 III의 경우 農家の 勞動力 增加率이 5.2~5.4%로 全體 勞動力 增加率보다 높은 水準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이 기간 農家人口의 勞動參與率이 높아진 데 기인된 것이다<表 1>. 그리고 1973~75년에는 假定 III의 경우 農家勞動力 增加率은 14歲 이상 人口 構成比의 급격한 增加로 약 7%의 높은 水準을

보이고 있는데, 이 기간에 農家の 14歲 이상 人口構成比가 非農家の 그것보다 급격히 높아진 이유는 확실치 않다.

이상의 全體 및 農家勞動力의 自然增加率 推定資料를 이용하여 各 期間의 農家勞動力의 純移動量을 推定한 결과는 <表 3>에서 보는 바와 같다. 이 表에 표시되어 있는 推定 I은 農家勞動力의 自然增加率이 全體 勞動力의 增加率과 차이가 없다는 假定 I을 전제한 것이고, 推定 II와 III은 部門別 勞動力의 自然增加率이 <表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差異가 있다는 것을 각각 전제한 것이다.

이러한 가정으로 推定된 결과를 보면 1964~66年 期間에는 年平均 勞動力 純移動量은 약 100千名으로 前提한 假定에 따라 別차이가 없다. 67~69年 期間에는 年間 勞動力의 純移動量이 130千~160千名으로 前期間에 비해 增加하였다. 이러한 두 期間의 年平均 農家勞動力의 純移動量은 家族計劃研究院에서 總人口 및 住宅 센서스 調査資料로 集計된 65~70年 期間의 年平均 移動量 약 130千名과 거의 비슷한 結果를 보이고 있다.

70~72年 期間에는 年平均 移動量이 약 150千~180千名으로 60年代의 두 期間에 비교해서 더욱 增加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73~75年 期間에는 推定 III의 경우를 제외하면 年平均 移

動量이 약 80千~100千名으로 60年代 두 期間의 경우보다도 낮은 水準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이 期間에 農家人口 중 14歲 이상 人口構成比가 급격히 增加한 사실은 農家勞動力의 自然增加率 推定을 고려한데 기인된 것이다. 그런데 總人口 및 住宅 센서스 調査資料로 集計된 70~75年 期間의 農家勞動力의 年平均 純移動量을 보면 약 110千名으로 前期間인 1965~70年の 年平均 純移動量 130千名보다 약간 낮은 水準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本稿에서 推定한 資料에 의하면 70年代에 와서도 70~72년에는 農家勞動力의 移動量이 增加하였고, 73~75年の 期間에는 급격히 減少하였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현상 즉 70年代 前半期 또는 73~75年 사이에 農家勞動力의 移動이 둔화되는 趨勢는 技術發展과 農產物價格의 相對的 上昇으로 農家所得이 向上된 데 기인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農家勞動力의 移動量은 73~75年 期間에 둔화되었으나, 76~78年 期間에 와서는 다시 크게 增加하고 있다. 76~78年 期間의 年平均 移動量은 약 230千~260千名으로 分析에 포함된 全期間 중 가장 높은 水準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勞動力 移動量의 급격한 增加로 農家勞動力은 76년부터 絕對的인 減少를 시작하였음은 앞의 <表 1>에서 본 바와 같다.

이러한 純移動量을 農家勞動力으로 나누어 계산한 年平均 勞動力 移動率을 보면, 73~75年 期間의 推定 I과 II의 경우를 제외하면 약 2~5%의 범위에 있다. 이를 期間別로 나누어 보면 64~66年 期間에는 2% 水準, 67~69年 期間과 70~72年 期間에는 2.5~3.5%, 73~75年 期間에는 推定 III의 경우를 제외하면 1.5%, 그리고 76~78年 期間에는 4%를 약간 상회하는 水準에 있다.

表 3 農家勞動力의 純移動量 推定 單位: 千人

期間	勞動力의 年平均 純移動量		
	추 정 I	추 정 II	추 정 III
64~66	103 (1.97)*	103 (1.97)	100 (1.91)
67~69	159 (3.03)	129 (2.46)	152 (2.90)
70~72	155 (2.96)	184 (3.52)	181 (3.45)
73~75	96 (1.68)	79 (1.38)	162 (2.84)
76~78	233 (4.06)	228 (3.97)	265 (4.61)

* () 내 수치는 農家勞動力의 純移動量을 農家勞動力으로 나누는 勞動力의 移動率.

이러한 農家勞動力의 移動率에 대한 分析 結果를 Minami(10)가 1951~1970年 期間을 5個年 期間으로 나누어 推定한 日本의 農家勞動力의 平均 移動率과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移動率이 약간 낮은 수준에 있다. Ohkawa(6)가 가장 믿을 만한 資料라고 평하고 있는 Minami의 推定結果에 의하면, 日本의 農家勞動力 移動率은 51~60年 期間에는 年平均 약 4% 水準이었고, 61~70年 期間에는 5%를 약간 상회하는 水準이었다.

Ⅳ. 農業部門 就業人口 및 雇傭構造의 變化

지금까지 우리는 農家人口 및 勞動力의 變化와 部門間 勞動力의 移動量을 推定하였다. 以下에서는 이러한 農家勞動力 중 就業勞動力과 雇傭構造의 變化에 대해 分析하고자 한다.

就業勞動力에 대한 資料는 經濟企劃院이 分期別로 調査 發表하고 있는데, 資料의 설명에 의하면 就業者의 定義는 調査期間인 1週 동안에 1時間 이상 收入이 있는 일에 종사한 자로 되어 있다. 그리고 就業勞動力은 農家の 就業勞動力과 農業部門 就業勞動力으로 나누어 調査되었다.

〈表 1〉에서 볼 수 있는 經濟活動人口와 〈表 4〉에서 볼 수 있는 就業人口의 差異는 失業勞動力을 표시하는데, 農家勞動力 중 失業勞動力의 比率은 期間 중 약 3%에서 1% 水準으로 줄어들고 있다. 이러한 農家失業率은 同一期間 非農家勞動力의 失業率이 16%에서 5%로 줄어드는 것과 비교된다. 그리고 農家の 就業勞動力과 農業部門 就業勞動力의 差異는 農家勞動力 중 非農業分野에 就業하고 있는 勞動力을 표시하는데, 이는 期間中 약 30千人에서 62千人으로 增加하고 있는

表 4 農家 및 農業部門 就業人口의 變化

年度	農家就業人口	農林業就業人口	農家人口中非 農業就業人口
	千人	千人	千人
1963	4,943 (64.5)	4,644 (60.6)	299
64	4,989 (64.0)	4,655 (59.7)	334
65	5,071 (61.8)	4,603 (56.1)	468
66	5,116 (60.7)	4,695 (55.7)	421
67	5,073 (58.2)	4,598 (52.7)	475
68	5,157 (56.3)	4,582 (50.0)	575
69	5,145 (54.7)	4,687 (49.8)	458
70	5,116 (52.5)	4,826 (49.5)	290
71	5,019 (49.9)	4,758 (47.3)	261
72	5,335 (50.5)	5,110 (48.4)	225
73	5,625 (50.5)	5,260 (47.2)	365
74	5,705 (49.2)	5,304 (45.8)	401
75	5,602 (47.4)	5,123 (43.3)	479
76	5,856 (46.6)	5,323 (42.4)	533
77	5,648 (43.7)	5,161 (39.9)	487
78	5,537 (41.0)	4,920 (36.5)	617

() 내 수치는 全國就業人口에 대한 比率임.
資料: 經濟活動人口年報.

며, 그 增加趨勢는 최근에 加速化되고 있다.

總就業者에 대한 農業就業者의 構成比는 1963년에 약 60% 水準이었으나, 5年 후인 1968년에는 50% 水準으로 減少되어 農業과 非農業의 就業勞動力이 같은 水準이 되었다(表 4). 이 기간의 農業部門의 就業人口 構成比의 減少는 人口 構成比의 減少보다도 빠른 速度로 進行되었다. 이는 이 기간에 非農業部門의 빠른 成長에 따른 非農業部門 人口의 就業率이 상대적으로 增加된 데 기인된 것으로 보인다. 그 후 1968년부터 72年 사이는 그 減少速度가 비교적 완만하였으나, 1972년부터 다시 그 速度가 加速化되어, 78年 현재 약 36.5% 수준으로 줄었다.

日本의 경우는 農業就業者의 構成比가 이미 1963년에 약 23%로서 우리나라의 현재 수준보다도 훨씬 낮은 상태에 있었고 또 그 構成比는 계속적으로 減少되어 왔다. 그러나 그 減少速度는 1973年 이래 비교적 완만한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1976年 현재 약 10% 水準에 머물고 있다. 臺灣의 경우도 農業就業者의 構成比는 1963

년에 약 55%이었는데, 그 후 1973년까지 우리나라보다 빠른 速度로 減少하여 왔으며, 지금은 약 30% 水準을 유지하고 있다.

農業就業者의 構成比를 農家人口의 構成比와 비교해 볼 때 日本이나 臺灣의 경우는 人口構成比가 就業者構成比보다 높은 水準에 있다. 즉 1978年 현재 日本은 農業部門의 人口構成比는 약 20% 水準이나 就業者構成比는 10% 水準에 불과하고, 臺灣은 人口構成比는 약 30%인데 就業者 構成比는 25% 水準에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와 반대로 人口構成比는 약 31%이나 農業就業者構成比는 37% 水準에 있어 상이한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日本이나 臺灣의 경우 農家勞動力 중 農外部門에 就業하고 있는 勞動力이 많다는 사실을 의미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이와 반대의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은, 農村地域의 農外就業機會의 협소와 부녀자 또는 노령자 등이 계절적이지만 農業作業에 參與하게 되어 農家人口에 대한 就業者의 比率이 상대적으로 높은 水準에 있다는 데 기인된 것으로 보인다.

農業部門就業者의 構成比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계속 줄고 있지만, 絶對就業者數는 1963년의 약 4.6百萬人에서 계속 증가추세를 보여 1976년에는 5.3百萬人 수준이 되었다. 그 이후 減少경향을 보여, 78年 현재 약 4.9百萬人 水準에 있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農家人口는 1967년을 고비로 계속 줄고 있으나, 農業就業者는 최근까지 增加하고 있는 현상을 보이고 있었는데, 이는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農業勞動力이 流出됨에 따라 農業作業에 參與하지 않았던 부녀자, 노령자 등의 農業作業參與率이 增加한 데 기인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農業就業者의 增加現象을 고려하면 1970年代 초기부터 시작된 農業勞動力의 不足問題는 絶對勞動力의 減少에 기인된 것이라기보다 水稻 新品種의 普及 등으로 農業部門의 勞動力 投下量이 增加되었거나, 限界勞動力의 參與에 의한 勞動의 質的低下로 絶對就業者數는 增加하였지만 效率單位로 측정된 就業者數는 줄었을 것이라는 가정에 기인된 것일지도 모른다.

産業間人口 및 勞動力의 移動과 雇傭構造의 變化는 經濟成長의 중요한 指標가 되고 있다. 그리고 農業部門就業者 構成比는 經濟成長 즉 1人當 國民所得 水準과 負의 關係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일반적으로 認定되고 있다.

이는 農產物 需要가 非彈力的이고 農業生産은 非再生產的 要素인 土地資源과 自然條件에 의해서 制約을 받기 때문에 農業은 基本的으로 經濟成長에 따라 生産性이 相對的으로 낮아지는 産業이기 때문일 것이다.

經濟成長에 따른 農業就業者 構成比의 減少現象은 他研究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 Kelley Williamson, Cheetham(11)의 두 部門 模型에서는 農業就業者의 構成比는 전체적인 資本勞動比率과 逆의 關係에 있음을 유도하고 있다. 非農業部門의 資本·勞動 比率이 農業部門의 그것보다 높은 상태에서, 農業部門의 資本·勞動의 代替率이 非農業部門의 代替率보다 높다고 가정하면, 全體的인 資本·勞動 比率의 增加는 農業部門 就業人口의 構成比를 줄게 한다. 이러한 과정은 部門間의 資本·勞動 比率의 차를 줄이고 점점 就業勞動力의 部門間 均衡配分狀態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다.

經濟成長과 雇傭構造의 關係를 보기 위하여 可用한 國際資料를 이용하여 農業部門 就業人口

의 構成比와 1人當 所得水準을 비교하였다. 農業資源 與件과 發展段階에 따라 國家間에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두 變數 사이에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資料가 可用했던 33개국에 대한 75年 기준의 資料에 의하면 1人當 國民所得이 1,000달러 이상인 國家는 農業部門에 30% 이하의 就業人口를, 4,000달러 이상인 경우는 15% 이하, 7,000달러 이상인 경우는 10% 이하의 農業就業人口 比率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거의 예외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³

위에서 설명한 33개국에 대한 橫的資料를 이용하여 1人當 國民所得水準(Y)과 農業部門 就業者 構成比(X)間에 다음과 같은 回歸關係를 얻을 수 있었다.

$$\ln Y = 11.52 - 1.4 \ln X, R^2 = .84$$

(.108)

물론 이들 두 變數의 回歸關係에 있어서 說明 變數의 選擇에는 論議가 있을 수 있다. 1人當 國民所得水準이 就業者 構成比를 決定하는지, 아니면 이와 반대의 關係인지, 또는 두 變數間에는 단순한 相關關係인지가 확실치 않기 때문이다. 사실 이 두 變數는 여러 가지 다른 變數들을 통해서 상호 연결되어 있는 복잡한 關係를 유지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農業·非農業部門의 就業者 構成比는 國民經濟의 工業化 정도를 나타내는 變數로 가정하고 就業者 構成比를 說明變數로 선택하였다. 1人當 所得水準이 工業化 정도를 결정한다기보다 工業化 程度가 所得水準을 결정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回歸關係의 結果에 의하면 就業者 構成比에 대한 1人當 國民所得의 彈力値가 약 -1.4 인데, 이는 農業部門 就業者 構成比의 10% 減少가 1人當 國民所得을 약 14% 增加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回歸關係

를 이용하여 韓國開發院(KDI) 研究팀이 90年代 초반에 달성될 것으로 예측한 바 있는 1人當 4,000달러 所得水準을 위한 農業部門 就業人口의 構成比를 推定해 보면 약 10% 水準이 된다.

V. 要約 및 結論

本論文은 우리 經濟가 빠른 成長을 지속하였던 지난 15年間(63~78)을 대상으로 農業部門의 人口 및 勞動力의 變化 趨勢를 검토하고, 農家 勞動力의 部門間 移動量을 推定코자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勞動力의 部門間 移動에 따른 就業人口의 變化와 雇傭構造의 變化를 分析코자 하였다.

農家人口는 67年の 16.1百萬人을 고비로 減少 趨勢를 보여 78年 현재 11.5百萬人으로 피크年度의 약 72% 수준에 있다. 그리고 農家人口의 構成比는 지난 15年동안 56%에서 31%로 25% 포인트가 減少하였고, 그 減少趨勢는 加速化되어 왔다.

農家の 勞動力 供給量을 표시하는 經濟活動人口는 76年の 5.9百萬人을 고비로 감소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78年 현재 약 5.6百萬人 수준으로 그 構成比가 약 40% 수준에 있다.

農家人口는 68년부터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14歲 이상의 人口 構成比와 經濟活動參加率의 變化로 農家の 經濟活動人口는 이보다 9年 후인 77년부터 감소하고 있다. 農家の 14歲 이상의 人口 構成比는 60年代에는 55~59% 수준이었으나 70年代 초반에 급격히 增加하여 현재 약 76% 수준에 있다. 이는 55년부터 시작된 戰後 「베이비 붐」에 기인된 것으로 보인다. 經濟活動參加率은 60年代에는 58~59% 수준이었으나 최근에는 64~65% 수준에 있다.

年度別 農家勞動力의 部門間 純移動量을 推定코자 하였으나, 資料의 不安定으로 3個年 期間으로 나누어 期間別 年平均 移動量을 推定하였다. 이 結果에 의하면 年平均 移動單은 1964~66年의 약 100千人 수준에서 계속 增加하여 1970~72년에는 150千~180千人 수준이었고, 1973~75년에는 80千~100千人으로 둔화되었다. 그러나 1976~78년에는 230千~260千명으로 다시 크게 增加하고 있다. 移動量을 農家의 總勞動力로 나누어 計算한 移動率은 60年代에는 2~3% 이었고, 최근에는 4%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에 있다.

推定된 勞動力移動量의 설명을 위해서 가용한 몇 가지 勞動力 移動模型의 적용을 시도하였으나 資料의 制約 특히 資料變異幅의 협소로 만족할 만한 結果를 얻을 수 없어 앞으로 研究되어야 할 分野라고 하겠다.

註 1. 農家人口調査는 行政調査로 실시되었으나, 1974년부터는 標本調査에 의한 推計로 발표되고 있다.

註 2. Mundlak(參考文獻 7)는 $(1+n_1)/(1+n)$ 를 다음과 같은 관계를 이용하여 推算하고 있다.

即 $n_1 = n / (1 - \frac{3}{4} l_1 l_2)$, 여기서 l_1 는 農業勞動力의 構成比이고, l_2 는 非農業部門 勞動力의 構成比일. 이는 $l_1=1$ 일 때 n_2 (非農業 勞動力 增加率) $= \frac{1}{4} n_1$ 이고, $l_1=0$ 일 때 $n_2=n_1$ 이라는 가정으로 線型 推算한 것임.

3. 구체적인 各國別 資料는 金英植, 「經濟成長과 農業·非農業間의 成長隔差」(參考文獻 12) 참조.

參 考 文 獻

1. Fei, J. C. & G. Ranis, "A Theory of Economic Development," *American Economic Review* 51, 1961. 9.
2. Lewis, W. A., "Development with Unlimited Supplies of Labor," *Manchester School of Economics and Social Studies*, 1954.
3. Jorgenson, D. W. Jesting, "Alternative Theories of the Development of a Dual Economy," in *The Theory and Design of Economic Development*, ed., I. Adelman and E. Thorbecke, Johns Hopkins Press, 1966.
4. Greenwood, M. J., "Research on Internal Migration in the United States: A Survey,"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1975.
5. Harris, J. R. and M. P. Todaro, "Migration, Unemployment and Development: A Two Sector Analysis," *American Economic Review*, 1970.
6. Ohkawa, K. and H. Rovovsky, *Japanese Economic Growth: Trend Acceleration in the Twentieth Century*, Stanford University Press, 1973.
7. Mundlak, Y., *Intersectional Factor Mobility and Agricultural Growth*, IFPRI Research Report 6, 1979.
8. Dovring, F., "The Share of Agriculture in a Growing Population," *Monthly Bulletin of Agricultural Economics and Statistics*, FAO, 1959.
9. 文顯相, 金弘淑, 「都市-農村間 人口移動現況과 家族計劃 및 出產水準의 變動」, 家族計劃研究院, 1979. 12.
10. Minami, R., "The Supply of Farm Labor and the 'Turning Point' in the Japanese Economy," in *Agriculture and Economic Growth; Japan's Experience*, (ed K. Ohkawa, et. al.),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9.
11. Kelley, A. C., J. G. Williamson and R. J. Cheetham *Dualistic Economic Development; Theory and History*,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2.
12. 金英植, "經濟成長과 農業·非農業間의 成長隔差," 「轉換期의 韓國農業」, 韓國農村經濟研究院, 研究叢書 1, 1979.